

동의·다산부대 장병에게 보내는 격려 서신

친애하는 동의·다산부대 장병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는지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참의장이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은 우리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비록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떡국도 먹고 함께 차례도 지내면서 전우애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의·다산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구호와 진료, 재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합니다. 앞으로도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임

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